제자훈련 나눔 자료: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 (여호수아 7-24 장)

본문(여호수아 7-24 장)의 흐름은 **아이 성 패배(내 생각대로 함) → 아간의 탐심 → 에발·그리심 산의 두 갈래 길**입니다.

나눔 문제 ① "작은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" (수 7-8 장)

핵심 설명

여리고 성의 큰 기적을 경험한 뒤,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를 "3 천 명이면 충분하다"며 기도 없이 공격했다가 패배했습니다. 문제는 성의 크기가 아니라 **하나님께 묻지 않은 태도였습니다**. 아이 성은 작지만,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. 우리도 큰 일은 기도하지만, 작고 익숙한 일은 내 경험과 판단대로 처리하기 쉽습니다. 아이 성의 교훈은 "**작은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**"는 것입니다. 여호수아가 전쟁 내내 단창을 들고 기도했듯이, **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**. **승리의 비결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**.

나눔 질문

1. 최근 "이 정도는 괜찮아,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" 하며 기도 없이 결정했던 작은 일이 있었나요? 그 결과는 어땠나요?
2.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만,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는 기도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3. 이번 한 주,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할 "작은 일" 한 가지를 정해 나누어 봅시다.

나눔 문제 ② "아간의 숨겨진 탐심" (수 7 장, 딤전 6:10)

핵심 설명

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고 명하셨지만, 아간은 바벨론 외투와 금·은을 몰래 챙겨 장막에 감추었습니다. 이는 큰 범죄처럼 보이지 않았으나 **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**이었고, **한 사람의 숨은 죄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**로 이어졌습니다. 아간에게 그것은 부자가 될 기회였지만, **하나님께는 말씀을 우선**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. 오늘날에도 돈에 대한 탐심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를 빼앗습니다. 본문은 진정한 물질의 축복이 "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" 온다고 말하며, 헌금은 '나'를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훈련이라고 가르칩니다.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을 기뻐하십니다.

나눔 질문

1. 나는 물질을 대할 때 "하나님이 주신 것"이라는 마음인가요, "내 것"이라는 마음인가요?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.
2. 남들은 모르지만 내 "장막 속에 숨겨 둔" 것(습관, 욕심, 타협)이 있다면,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?
3.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과 물질 생활을 위해 내가 바꿔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?

나눔 문제 ③ "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" (수 8:33, 신 11:26-29, 마 7:13-14)

핵심 설명

여호수아는 세겜의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,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여, 말씀 순종이 곧 축복의 길임을 온 백성에게 새겼습니다.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며,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갈래 길의 원리입니다. 예수님도 좁은 문과 넓은 문,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, 양과 염소의 비유로 같은 진리를 가르치셨고, 신약에서는 이 길이 "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"와 "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"로 나뉩니다. 믿는 자 안에서도 갈립니다. **성령을 좇아 사는 비결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며**,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.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.

나눔 질문

1. 지금 내 삶에서 "성령을 따르는 길"과 "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"이 부딪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?
2.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나요?
3.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위해, 우리 소그룹이 서로 어떻게 격려하고 중보할 수 있을까요?